

#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 위해 최선”

### 농협 전북검사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실천 2차 특별점검… 추진태세·조합원관리 등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성수)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43개 농, 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검사국은 지난해 12월 관내 48개 농, 축협을 대상, 1차 특별점검을 했고 금년 2월까지 각 2회씩 특별점검을 하여 총 3차에 걸쳐 관내 91개 농, 축협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은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농, 축협의 공명선거 추진태세·조합원관리 실태 점검과 더불어 취약시기 사고예방 점검까지 겸해하고 있고 농, 축협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이 18일까지 관내 43개 농, 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성수 전북검사국장은 “농, 축협과 조합원이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동시 조합장선거는 2019년도 유일의 전국 규모의 선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

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가계동향조사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 강신욱 통계청장, 긴급 브리핑 열어… 입장 선회 밝혀

강신욱 통계청장이 7일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불응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조사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사를 심각히 방해하는 요인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새롭게 개편해 적용하기 시작한 올해부터 조사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이다. 강 청장은 “국민들께 최대한 끝까지 부탁드리고 자제를 낮춰 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앞으로

도 그럴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통계청이 하루 전날 내놓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통계청은 이 자료에서 “가계동향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었다.

강 청장은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불응 가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을 과거와 같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현장 조사 요원에 대한 조사 대상 가구의 폭언이나 폭력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선 “조사 요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는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달 중 시행

### 취득일로부터 2년→1주택 된 이후 2년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 급여 기준, 190만원→210만원 상향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에 16개 기술 추가 약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 때 개별소비세 환급

앞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16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지원방안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

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1회에 한해서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종과배제, 임대료의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연 5%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의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다.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시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호수×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을 추가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때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올라간다.

혁신성장 지원책으로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연되는 재투자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 연장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생활편의성도 높였다. 약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준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kW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늘린다.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한다.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한다.

공익법인 관리는 강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국제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넓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공인중개사 절반이상 “올 집값 떨어질것”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올해 집값이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7일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전국 협력 공인중개사 1868명(수도권 98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952명)가 하락을 예상했다.

이중 보합이 44.3%(828명)으로 집계돼 전체 응답자 중 95.2%(1780명)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로 차입여력 축소’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급물량 증가 26.9%, 지역 기반산업 및 경기 침체 10.5%,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 규제

9.6%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보합’의 응답률이 49.7%를 차지해 하락(45.2%)보다 우세했고 수도권도 ‘보합’(48.7%)이 ‘하락’(46.4%) 전망보다 많았다. 반면 지방은 ‘하락’ 응답률이 56%로, 보합(44.3%)보다 높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도권이나 서울보다 많았다.

한편 전월세 시장도 응답자 열중 아홉이 보합 내지 하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세시장의 경우 ‘보합’의 응답률이 52.1%로 하락(42.3%)보다 높았으며 월세시장도 ‘보합’이라고 답한 응답의 비중이 60.0%로 집계돼 하락(36.3%)보다 많았다. /김명태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공채 신규직원 환영식 가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7일 지역본부에서 2018년 하반기 공채 직원 12명의 입사 축하를 하기 위해 신규직원 환영식을 했다고 밝혔다.

환영식은 신규직원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됐고 농협은행 선배들도 참석해 직장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를 격려하고 환영했다.

새내기 신규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 선물, 영상편지를 통해 부모님께 감사, 존경을 전했고 부모님들은 농협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농협은

행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해 줬다. 김장근 본부장은 “신규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일할 것, 끊임 없이 공부하고 준비할 것,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또한, “함께 힘을 모아 농협은행을 아시아 최고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역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을 위해 전북에서 총 221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